

# 海女 海藻をとる

*Ama* Gathering Seaweed

해녀 해조를 채취한다













































## 海女という生き方

小島孝夫

成城大学文芸学部教授

現在、鳥羽・志摩地方で海女漁に従事している女性たちの多くは、昭和20年代から30年代にかけて生まれた世代である。彼女たちの多くは学齢期から青年期にかけて高度経済成長期を経験した世代である。当時の鳥羽・志摩地方は第1次産業が基幹産業で、若者たちは中学校を卒業すると男子は漁師になるか大工や左官などの職人になる場合が多く、女子は結婚適齢期を迎えるまでの間、真珠養殖場などで働いた。就職先自体が限られていた時代であった。

また、女性が結婚して出産を経て子育てをしながら家計を支えていくためには、嫁ぎ先の家業を続けながら就くことができる職種が選択された。多くの女性たちが、自給用の農作物つくりと夏季の海女漁による年周期活動を選択した。当時の海女漁は、潜水メガネとイソギとイソオケ、漁具のイソノミがあればできる漁であったから、多くの女性たちが夏季の季節労働として潜水漁を選択していった。

海女漁の特徴は、男性が従事する漁

法と異なり、漁具などに資本の差がなく、海女個人の体力や技能や知識、そして気力がそのまま漁獲額の差となって表れるので、漁法のなかでも個人差が表出しやすいものであった。しかし、海女たちの意識は他者の漁獲額を羨ましく思うことがあっても、他者を妬むようなことは起きにくいものであった。それは、羨ましく思う相手が自分にとっての目標となる存在でもあったからである。

こうしたことを端的に示しているのが、後輩海女が先輩海女のアジロ（漁<sup>ギョ</sup>場）を覚えていくという行為である。先輩海女たちは自分自身のアジロを隠すようなことをせず、転石を裏返ししたり戻したりすることを後輩海女に手伝ってもらうことで、アジロを教えるようなことをするのである。海女漁は一般的に漁業にみられる競争の論理とは異なる、協力の論理によって成立しているのである。

なぜ、こうしたことが可能になるのか。先輩海女はアジロを知られたとし

ても、他にも自分のアジロを持っており、さらにアワビを傷つけずに剥がし採る技能を有しているなど、先輩海女としての自負があるからなのである。

海女たちは、全人的な個人の力量により他者を評価する一方で、自分自身も他者から一人前の海女と評価してもらえるように努力しているのである。海女漁をとおして形成された集団内の関係性は、海を離れた日常生活においても通底しており、高度経済成長期という競争を前提とした時代背景のなかで、海女集団として限られた資源を共有しながら生活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状況を、ともに乗り越えていくという経験を共有していくことにもなったのである。海女漁でつながった女性たちによって当該地域社会の安寧が保たれてきたとも言えるのである。

海女漁は特殊な生業というよりも、沿海地域で生活する女性たちが複合的に年周期の生産活動を行おうとした際に、最も理にかなった季節的な生産活動である。海女たちは、「海女（漁）しかなかった」と口にすることが多いが、むしろ、「海女として生きてこられた」から、今日にいたる生活が維持できたのだと言える。

海女漁は集団による操業が基本となっており、協力を前提とした操業形態が、海女たちの間で過度な資源利用を相互に規制する意識を共有させてきたのである。海女たちが有する集団性あるいは共同性といったものが、巧まざる資源管理を可能にしてきたのである。こうした海女の生き方は、漁業のあり方を超えて、現代社会における人間関係のあり方を捉え直すという点でも評価されるべきものである。



## The Way of *Ama* Life

Takao Kojima

Professor, Department of Literature, Seijo University

Most female *ama* working today in Toba and Shima were born between 1945 and 1955. These women experienced the rapid expansion of the Japanese economy from elementary school through adolescence. In those days, the primary industries were the core industries. Young men became fishermen or craftsmen, such as carpenters, and women worked at pearl farms until they became old enough to get married. Job opportunities were limited.

Moreover, in order to support the family economy after getting married and having children, women chose jobs they could work while still keeping house. Many women chose self-sufficient work, growing vegetables in season, and *ama* work in the summer. At that time, *ama* work required goggles, diving clothes, a wooden bucket and a chisel. Many women chose diving work as a summer job.

The *ama* fishery was uniquely different from male-dominated fisheries. *Ama* were not affected by different types of fishing equipment. They only needed their physical strength, skill, knowledge and willpower to make good money. Therefore, it was easy to see how well individuals did compared to others within the fishery. Although *ama* might feel envious of the amount of money others made, it hardly occurred to them to be jealous of other *ama*. Rather, they aspired to be as good as the more successful *ama*. For example, younger *ama* memorized the favorite fishing sites of their seniors. Senior *ama* did not keep their fishing sites secret. Apprentice *ama* would assist their mentors by flipping rocks for them, and thus learn the location of these sites. The ethics of *ama* fishing differ from most fisheries. The *ama* fishery depends on cooperation. Why is this possible? Although senior *ama* share some of their fishing sites, they

have other sites as well. They have the skills and self-confidence as senior *ama*; they can remove abalone from the rock without scars.

Relationships amongst *ama* work like this. Each *ama* must understand her personal skill level to be able to evaluate others. At the same time, she must demonstrate her abilities to be recognized as an accomplished diver. Fishing relationships established between *ama* carry over to their daily life on land. During the competitive era of high economic growth, *ama* worked together to share the limited natural resources. The sense of unity women established through the *ama* fishery helped maintain tranquility within their community.

*Ama* fisheries make sense as seasonal activity for women that live by the coast, along with other seasonal jobs, rather than a special year-round occupation. *Ama* often said, “There was only the *ama* fishery available.” Instead, we can say that they are able to sustain the life they have now because, “They have lived as *ama*.” *Ama* work as a group. The ethic of cooperation helped them regulate the harvest and prevent over fishing. The *ama* way of life is more than just a style of fishery. Human relationships today could benefit by reflecting on this way of life.



## 해녀라는 삶의 방식

### 고지마 타카오

세이조대학 문예학부교수

도바·시마 지역에서 현재 해녀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쇼와 20년대(1945~1954)부터 30년대(1955~1964)에 걸쳐 태어난 세대이다. 그녀들은 학령기에서 청년기에 걸쳐 고도경제성장기를 경험한 세대이다. 당시의 도바·시마지역은 1차산업이 기간산업으로, 젊은 층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남성은 어부가 되거나 목수, 미장이 같은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은 결혼 적령기를 맞을 때까지 진주 양식장 등에서 일했다. 취직 자리가 한정되어 있던 시대였다.

그리고 결혼해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가계를 돕기 위해 가업을 이어가며 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해야 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급자족용의 작물을 재배하며 여름에는 해녀업을 하는 1년간을 주기로 한 활동을 선택했다. 당시의 해녀업은 물안경과 물웃, 빗창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어업형태여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여름철의 계절노동으로서 해녀업

을 선택했던 것이다.

해녀어업의 특징은 남성이 종사하는 보통 어업과는 달리 어업 도구 등에 자본이 많이 필요치 않고 해녀 개인의 체력이나 기술, 지식, 그리고 기력이 그대로 어획량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어법에 따른 개인의 차이가 드러나기 쉬웠다. 그러나 해녀들은 남의 어획량을 부러워하는 일은 있어도 남을 질투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럽게 여기는 대상이 자신에게 있어 목표가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후배해녀가 선배해녀의 아지로(어장:漁場)를 외우는 행위에 있다. 선배해녀들은 자신들의 아지로를 감추려 하지 않고, 바위(어장임을 알 수 있는 표식)를 뒤집거나 돌려 놓을 때 후배해녀들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아지로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해녀어업은 일반적인 어업에서 볼 수 있는 경쟁의 논리와는 달리 협력체계에 의해 성립된다.

왜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것일까? 선

배해녀는 자신의 아지로를 후배가 알게 되어도, 그 외에도 자신만의 아지로를 가지고 있으며, 전복을 상처 내지 않고 채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등, 선배해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녀집단 내에서의 서로의 관계성은 전인적인 개인의 역량을 타인이 평가함과 동시에 동료로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해녀업을 통해 형성된 관계는, 바다를 떠난 육지에서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공통되며, 고도경제성장기라는 경쟁을 전제로한 시대배경에 있어서도 해녀집단으로서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며 살아가야 할 상황을 함께 극복해 가며 경험을 공유해 가는 관계가 된 것이다. 해녀업으로 결속된 여성들에 의해 해당 지역사회의 안정이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해녀업은 특수한 생업이라기 보다는 연안 지역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이 복합적인 1년주기의 생산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이치에 맞는 계절적인 생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해녀들은 「해녀(어업)를 하지 않았다」라고 많이 말하지만, 오히려 「해녀로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에 이르

기까지 생활이 유지되어 온 이유라고 생각한다. 해녀업은 집단으로 하는 조업이 기본이며 협력을 전제로 한 조업형태로써, 해녀들 사이에서 과도한 자원 채취를 상호간에 규제하는 의식을 공유해 왔다. 해녀들이 갖는 집단성 또는 공통성 같은 것이 고갈되지 않는 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해녀들의 삶의 방식은 어업을 떠나,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를 바로 잡는다는 면에서 견본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